

'30년 1조불 수출 달성을 위해 중동전쟁 등에 따른 수출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 수출 유망기업 등을 집중 지원

- 수출 플러스 지원단 출범(4.1일) 후 첫 지원단장(재정경제부 1차관) 현장행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오스테오시스) 방문 및 6개 수출기업 애로 청취
- 추정 사업의 신속한 집행,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현장애로 밀착해소, 수출금융 고도화, 지역 수출기업 육성 등 향후 업무 추진방향 제시

이형일 수출 플러스 지원단장(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월 21일(화), 서울 구로·금천구에 소재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오스테오시스(입주기업)의 의료기기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4.1일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지원단장의 첫 현장행보로서,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출 플러스 지원단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4.21(화) 10:00~11:30,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 세부일정: (10:00~10:25) 오스테오시스(입주기업) 방문
(10:25~11:30) 제1차 수출 플러스 간담회
- 참석자(간담회): (정부) 재경부 1차관,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기관) 코트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오스테오시스, 웰크론, 이지스, 서보스타, 플라리스오피스, 고려기연

이형일 단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 주요국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 언급하고,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이번 첫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 현장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우리 수출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배가(倍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수출(억불, 전년동기비, %): ('26.1)658.1(+33.8) (2)673.1(+28.7) (3)861.3(+48.3) (4.1~20)503.8(+49.4)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발 물류 애로와 함께 해외 거래처 발굴, 수출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애로를 제기하였다. 지원단장과 수출 유관 기관들은 제기된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지원단장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 확대, 공동 물류센터 지원 강화,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이 현장에서 빠르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현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접수되는 애로는 당일 접수 즉시 소관기관을 배정하는 한편, 향후 다부처 복합애로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병목 애로에 대해서는 중점·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수출·수주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나갈 방침이라 언급하였다.

셋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대응하여 업종·분야·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물류, FTA, 환율 변동, 방산, K-컨텐츠 등에 대한 특화 분야 설명회와 1:1 방문 상담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는 중동 대체시장 및 친환경·디지털 등 유망 분야 10대 수주 프로젝트를 발굴해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넷째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정책금융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과 생산적 금융과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서비스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지역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문턱을 낮추고,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지원단장은 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채널을 개설하여 지역내 수출 유망기업이 5극3특의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출진흥사업과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제도들 간 시너지를 확보하고, 지역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장은 “정책의 해답은 늘 현장에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를 찾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와 개선과제는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손정혁 (02-6000-5783)
		담당자	사무관	유채연 (julieyu@korea.kr)
	수출 플러스 지원단 신산업진출팀	책임자	과 장	김진석 (02-6000-5793)
		담당자	사무관	이장석 (eldorado@korea.kr)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진출팀	책임자	과 장	공경화 (02-6000-5784)
		담당자	사무관	김호열 (devils77@korea.kr)
	수출 플러스 지원단 성장금융팀	책임자	과 장	공 석 -
		담당자	사무관	연보현 (yn8823@korea.kr)



참고

수출 플러스 지원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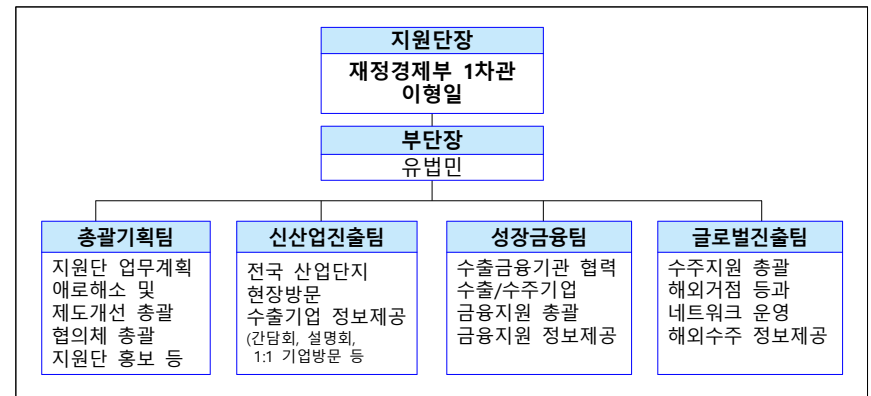
- (개요) 「30년 1조달러 수출달성 국정37」 등 국정과제 성공이행,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민관 합동조직으로 출범(‘26.4.1)
- (근거) 수출 플러스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 (역할) 수출지원 관련 부처·지자체·기관 간 협업 총괄·조정, 수출기업 대상 애로해소(제도개선), 정보제공, 금융지원 등

[참고]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기능(국무총리 훈령 제2조)

- | | |
|--|--|
| 1.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총괄·조정, 지원성과 점검 | 4. 수출 관련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마련 지원 |
| 2. 수출 관련 지방정부와 협업(지역 수출 지원) | 5. 수출 기업 설명회·간담회 등 기획·실시, 애로사항 접수·관리, 법·제도의 개선 |
| 3. 수출 관련 시장 동향 점검·분석 지원, 신성장 수출 산업 분야 정책 조사·분석 | 6. 수출지원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네트워킹 및 경제·투자협력 사업 지원 |

- (조직) 단장(재정경제부 1차관) + 부단장(재경부·산업부) + 총 4개팀
- 부처 및 기관 간 수출지원사업의 총괄 및 조정, 지원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합동 조직으로 구성

* 재경부, 산업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방사청, 관세청



- 각 부처별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 상시 협업체계 가동 중
-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 www.export119.go.kr (수출/수주 정보제공, 애로사항 접수)

- (업무) 정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관리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도록 지원
 - 지원단-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성
 - ↳[협력기관, 수출금융기관,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
 -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현장애로를 파악 및 해소하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 지원단 업무 흐름도 】

